

'30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중단

문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 대책 발표

호남 1·2호기는 여수산단 전력수급 문제로 제외돼

10기 전체 임기내 폐쇄...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다만, 여수지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곳은 전력수급상 문제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이 같은 내용

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중 8곳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은정초교를 찾

은 자리에서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한대 600만원 하는 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원 가량 든다. 재정 투입해서라도 모두 설치하겠다"며 "또 국가 대기측정기도 광역단위로 설치돼 1대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데 배로 늘리겠다. 1대 권역을 10개 학교로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

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당초 10기 모두 셧다운하려고 했지만 전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호남에 있는 (노후한 화력발전소) 2기는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헬기사격' 61항공단 지휘관들 '모르쇠' 일관...전화번호 바꾸기도

5·18민중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에서 150여점의 헬기사격 탄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이 발견되고, 공중 사격에 나선 헬기의 기종(UH-1헬기)까지 특정됐는데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육군항공 지휘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관련 진실을 낚날이 규명하겠다"고 공약한 대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당시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1항공여단(여단장 송진원 준장) 예하 61항공공단(단장 손승열 대령) 예하 203항공대 소속 UH-1헬기를 몰고 광주에 투입된 채도 소령은 지난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작전 명령에 따라 광주에 투입됐으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 우리는 5·18 마지막날, 도청 진입작전에 공수부대를 이송해준 기억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지휘관인 61항공단장 손승열 대령도 "UH-1헬기는 수송기로 병력 이송만 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투입된 헬기 작전 내용의 모든 것은 여단장이 육본에 직접

보고했다"고 여단장 송진원에게 떠넘겨 놓고선 며칠 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해버렸다.

육군의 유일한 항공부대인 1항공여단 여단장 송진원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40년도 다 된 그 얘기를 왜 또 들춰내느냐.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되레 불쾌감을 표했다.

정춘식 5·18민중유공자 유족회장은 "5·18시민군 최후 항쟁지였던 전남도청 옆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흔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거쳐 헬기사격 탄환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각종 군 문서, 관련자 검찰 진술, 당시 시민 증언 등 모든 정황과 물증이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 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이어 "당시 출동했던 항공부대, 헬기사격에 투입된 기종 등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가증스럽게도 항공부대 지휘관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사를 갖춘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 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 유혈진압을 저지른 반란군들이 늘어 죽기 전에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우병우 수사 뒤 만찬 논란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자주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해당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끝낸 직후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범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각 봉투에는 50만~1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시가나 형식 면에서 사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사려 깊지 못한 점은 있으나 점을 내비치면서도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으나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가례 치르는 성년자

성년의 날인 15일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열린 전통 성년례에서 참석자들이 죽두리를 착용하는 가례를 치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18일 오후 4시 전면 개통

광산구 운수동~오선동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8년 만에 완공돼 18일 오후 4시 전면 개통된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한 혼합도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715억원을 들여 광산구 운수동~장수동 간 3.0km의 1공구와 장수동~오선동 간 2.5km의 2공구로 나눠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개통된 장수동~오선동 간 2공구에 이어 이번에 운수동~장수동 간 1공구가 개통돼 '운수동 운수교차로~오선동 발산교차로'까지 5.5km(폭20m) 전 구간이 8년 만에 개통되게 됐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3시 광산구 운수교차로에서 운영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시공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통으로

나주혁신도시나 평동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시간이 단축돼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국도 13호선 교통량이 분산돼 사회간접비용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운수IC)와 호남고속도로(북광산IC)가 직접 연결되는 광주 서부권 교통 대동맥이 구축돼 무진대로와 빛고을대로 중심의 교통체제가 다원화돼 광주지역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9만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9만원(보1,500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9만원(보1,200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9만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9만원(보69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9만원(보1,200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9만원(보19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9만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9만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9만원(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9만원(보3,700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9만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9만원
2. 진도동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99만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69만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9만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9만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9만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9만원
8. 매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 매5,29만원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